호남인맥 대해부

〈1〉 들어가며

인재등용 지역차별 없어야 국가미래 있다

좋건 싫건 한국 사회에서 인맥(人脈)은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다. 우리나라처럼 관(官) 주도적 사회에서 입법·사법·행정부 내 고위직들은 서로 얽히고 섥힌 인맥을 통해 한국 사회를 움직여 왔다.

광주·전남지역 등 호남은 박정희 정권 이래 인재등용이란 측면에서 소외되어 왔었다. 전두환·노태우 군부정권 때도 상황은 참담했다. 김대중 정권 이후 호남 인재 소외 현상이 많이 완화됐지만 과거 호남 인재 배제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하다.

광주일보는 창사 55주년을 맞아 정부 부처를 비롯, 입법·사법부의 주요 호남인맥을 집중 조명하는 탐사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를 통해 명멸했던 호남 인재풀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본다.

취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5공화국부터 참여정부까지 차관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기본 자료로 이를 지역별, 정권별로 재분류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 빈도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각 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심층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

12·12이후 신군부 노골적 호남 배제
5·6共 차관급 이상 10~12% 불과
18년간 '8대 핵심 요직' 인사 2명뿐

박정희 독재 정권 아래서 꾸준히 관리되며 성장해왔던 영남 군부 세력은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대부분의 정부 요직을 영남 인사로 채워 넣었다.

이에 따라 부산, 포항, 대구, 창원 등 영남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발로 박정희 독재 시절부터 심화됐던 영·호남의 경제적 격차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벌어지게 됐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정권의 영남 편중 인사는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일단 전두환 정권에서 차관급 이상 공직을 맡은 사람은 모두 395명(중복 임명자 포함)이다.

여기서 호남 출신은 전체의 10%인 41명에 불과했으며 광주·전남은 24명(장관급 이상 12명)에 불과했다.

국민의 정부서 호남인맥 만개

이마저도 정부 핵심 부처와는 거리가 먼 동력자원부 장관(박봉환), 보건사회부 장관(김정례), 체신부 장관(이대순), 체육부 장관(조상호) 등이었다.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자리를 맡은 호남 인사로는 이한기 감사원장, 김종호 건설교통부 장관, 윤성민 국방부 장관 등 3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영남 출신은 전체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44%인 173명에 이르렀다. 호남 인맥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영남 인사들은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부), 내무부(행정자치부), 감사원장, 치안본부장(경찰총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안기부장(국정원장) 등 정부의 예산과 정책, 사정·정보 기관 등 8대 핵심 요직을 독점했다.

여기에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이상을 지낸 46명의 공직자 가운데 영남 출신은 25명에 이르렀으나 전남 출신은 김창식 정무수석비서관이 유일하며 전북 출신은 이종율 공보수석 비서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태우 정권 아래서도 영남 인맥의 정부 부처 고위직 독식은 계속됐다.

전체 370명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호남 출신은 전체의 12%인 46명이었으며 광주·전남은 24명에 불과했다.

반면, 영남 출신은 전체의 42%인 153명으로 집계되면서 호남 인맥의 3배를 상회했다.

정부의 핵심 요직은 여전히 영남 출신의 독차지였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지낸 4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명이 영남 출신인 반면 호남 출신은 4명에 불과했다.

정부 8대 핵심요직에 호남 출신은 단 한 명도 기용되지 못했다.

문민정부 들어서도 영남 인맥의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호남 인맥의 싹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425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전체의 13%인 57명(광주·전남 33명)으로 집계됐다.

영남 출신은 전체의 40%인 173명으로 호남 출신에 비해 3배 이상의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으며 정부 핵심 요직 독점 현상도 여전했다.

특히, 5공, 6공, 문민정부에서 정부 부처 8대 핵심요직을 맡은 호남 인사는 이한기 감사원장과 강운태 내무부장관 등 2명에 그친 반면 영남 출신은 59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호남 인맥들은 정부 부처 장·차관에 진출하며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천용택 비상기획위원장, 강운태 내무부장관, 최인기 농림부 장관, 김양배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호 노동부 장관 등이 꼽힌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정부에서 그동안 영남 인맥에 치이며 음지에서 시들어 갔던 호남 인맥이 만개했다.

전체 408명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호남 출신은 전체의 33%인 131명으로 90명(22%)에 그친 영남 출신을 추월했다. 호남 출신 장관만 해도 44명(광주·전남 33명)을 배출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호남 출신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영남 출신보다 많은 것은 국민의 정부가 최초로 꼽히고 있다.

제5공화국 이후 호남 인맥이 18년 동안 억눌려왔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는 정부 핵심 부처에도 호남 인맥을 과감하게 기용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에는 호남 출신 3인방인 진념, 전윤철, 강봉균씨가 각각 기용됐으며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구로 출범한 기획예산처 장관에도 광주 출신의 장승우씨와 전남 출신의 전윤철씨,전북의 진념 씨가 차례로 발탁됐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는 박상천, 김정길, 심상명, 송정호씨 등 전남 출신 4인방이, 행자부 장관에는 최인기씨가 중용됐다.

국가정보원장으로는 천용택, 신건씨가, 국세청장에는 안정남, 손학래씨가, 경찰청장으로 김세옥, 이무영씨가, 검찰총장에는 신승남씨가 각기 호남 인맥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발탁됐다.

한편,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결국 태생적 기반인 영남을 외면하지 못했다.

전체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418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전체의 27%인 111명에 그친 반면 영남 출신은 전체의 38%인 158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서도 영남 우세

각 부처에 호남인맥과 영남인맥이 혼재돼 있지만 영남 인맥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대 정부 부처 핵심요직에서는 영남 인맥(12명)이 호남인맥(7명)에 비해 우세한 형국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광주·전남 인맥으로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김장수 국방부장관,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전윤철 감사원장,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조영택 대통령 정무특보, 김종빈 검찰총장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共~참여정부까지 차관급 이상 공직자 영남이 호남의 2배

제5공화국부터 참여정부(4월 15일 현재)까지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공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영남으로 나타났다.

전체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2천18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전체의 37%대인 747명으로 집계된 반면 호남 출신은 전체의 19.1%인 386명(광주·전남 244명, 12%)로 나타났다.

영남 출신이 호남 출신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수치다.

다음으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이 384명으로 전체의 19%를 나타냈으며 충청권이 262명으로 12.9%를 기록했다.

지난 1949년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인구 비율(영남 31%, 호남 25%, 수도권 21%, 충청 16%, 강원 5.6%)를 감안해 보면 영남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다.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도 영남으로 분석됐다.

전체 739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267명(대구·경북 142명)으로 집계됐으며 다음으로는 수도권(서울 94명)으로 149명의 장관을 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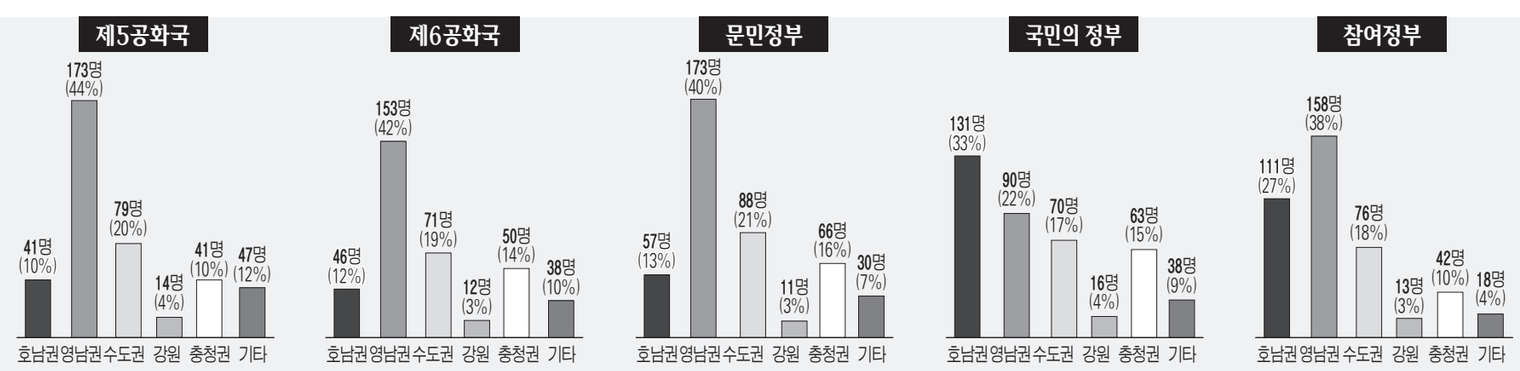
호남 출신은 145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장관급 이상 공직자를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광주·전남은 99명으로 나타났다.

충청 출신 장관급 이상 공직자는 99명(충남 58명)으로 집계됐으며 강원은 25명에 그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제5공화국 이후 차관급 이상 정부부처 공무원 지역별 분포 (단위:명)

구분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강원	충청권	기타	합계
제5공화국	41	173	79	14	41	47	395
제6공화국	46	153	71	12	50	38	370
문민정부	57	173	88	11	66	30	425
국민정부	131	90	70	16	63	38	408
참여정부	111	158	76	13	42	18	418
소계	386	747	384	66	262	171	2016



www.hanbitgosi.co.kr ▶ 공무원합격 검색률 1위
공무원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수강률 1위! 만족도 1위! 합격률 1위! - 새로운도전 .....이젠 한빛이 경쟁력이다
7·9급 공무원전강좌
두배빠른 합격시스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호텔급 학원! 최강의 프로강사진!
누가뭐래도 "역시" 한빛고시학원입니다.
이구동성! 한빛이 최고!
개강▶5월 1일 (주/야간반)

공무원학원의 1등브랜드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자매학원 :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2-8088), 한빛경찰학원 (전대후문 북구청앞 262-3553)

새로 발명한

운동효과
발목 펌프 운동이란, 혈액 순환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질환에 대한 걱정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 비만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사람의 심장에서 밀려나간 혈액은 발끝까지 내려가면 힘이 쇠진해진다. 지속적인 왕성한 혈액순환을 위하여 새로 개발한 운동봉위에 다리를 들었다 떨어뜨리는 운동으로써 발목 근육에 자극을 가하여 온몸의 혈액순환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켜 주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치료 되면서 혈액순환 개선과 특히 하체 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신발명 발목펌프 운동봉이란
직경 7㎝ 길이 31㎝ 원통목재와 직경 6.4㎝ PPC원통 길이 31㎝의 각각 양쪽 가장자리에 직경 5㎝ 스프링 2개를 장착하여 소음진동을 완전 해소 시켰음으로 APT에서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며 스프링의 완충작용으로 인하여 발목근육의 통증을 완아시킴으로서 발목이 전혀 아프지 않음으로 장시간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한 것 등이 새로 발명한 발목 펌프 운동봉의 특징이다. 종전의 각종 통나무, 대통, PVC등 원통형 운동봉은 소음진동 때문에 APT에서는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하였으며, 재질이 딱딱하여 발목이 아파서 사용을 제대로 못하였다.
1일 3,000회(소요시간 약30분)=10,000보 걷는 효과

목재 ₩20,000원 PPC ₩15,000원
운동방법
1. 누워서 운동봉(아래 수건을 깔것)위에 두 다리를 올려 놓는다.
2. 한쪽 다리를 20~30㎝ 위로 올렸다가 떨어뜨리기를 50번씩 번갈아 좌, 우 교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처음은 하루에 500회, 1,000회 차차 횟수를 늘여 1일 3,000회 정도 매일 꾸준히 하여도 발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의문사항에 친절히 답하겠습니다.
온라인계좌 : 광주은행125-121-002455, 농협601154-52-335334 예금주 : 서영섭
상담전화 TEL.062)672-2002, H·P. 011-609-0450